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18.(수) 12:00
(지 면) 2026. 11. 19.(목) 조 간

전기장판·전기난로 안전사용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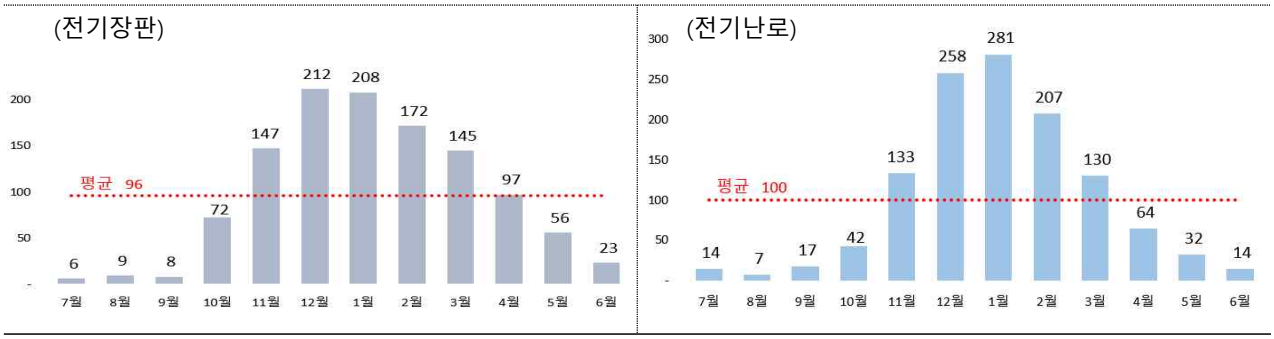
- 전기장판,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주의, 시간설정 활용
- 전기난로,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 정리 정돈과 사용 후 전원차단 철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등 전열제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21~'25) 동안 전기장판(전기담요·전기방석류 포함)과 전기난로(전기히터·전기스토브) 관련 화재는 총 2,354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7명이 사망하고 2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열제품 화재는 12월에서 1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11월은 보관 중이던 제품을 본격적으로 꺼내 쓰기 시작하면서 화재 건수가 평균을 웃돌기 시작하는 시기로 사용 전 철저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5년('21~'25)간 월별 전기장판·난로 화재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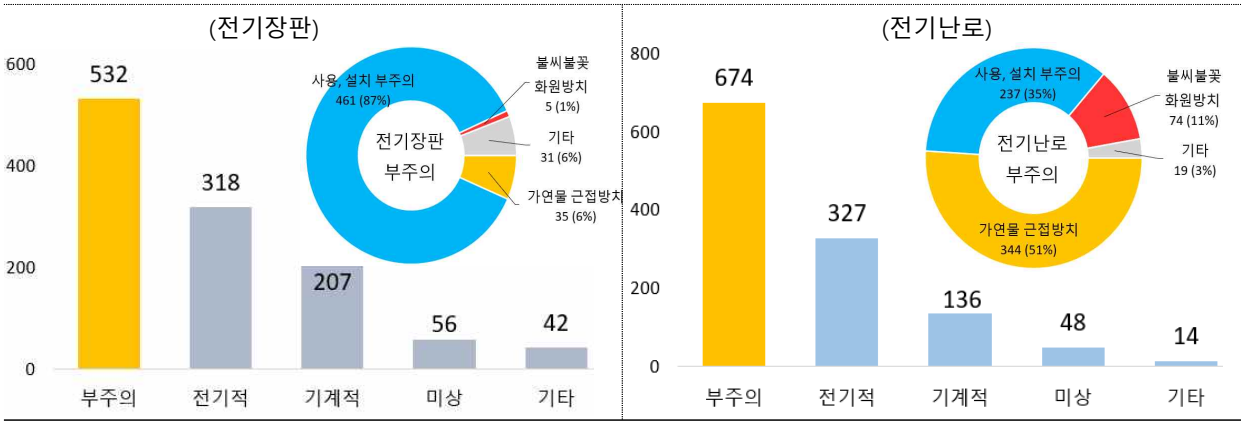


[출처: 국가화재정보센터, 소방청]

원인별로는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모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장판은 사용·설치 부주의 87%(부주의 532건 중 461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기난로의 경우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어 발생한 화재가 51%(부주의 674건 중 344건)로 가장 많았고, 사용·설치 부주의 35%(237건), 불씨·불꽃·화원 방치 11%(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1~'25)간 원인별 전기장판·난로 화재 현황>



[출처: 국가화재정보센터, 소방청]

전열제품을 사용할 때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보관 중이던 제품을 꺼내 쓸 때는 플러그와 전선, 열선 등이 늘어나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용 중 전선이나 플러그에 균열, 변색, 과열로 탄 자국 등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긴다.

또한, 외출 등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야 하며, 높은 온도로 장기간 사용할 때는 시간설정(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일정 시간 후 전원이 꺼지도록 한다.

제품별 특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려 열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불 등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온도조절기 등 조작부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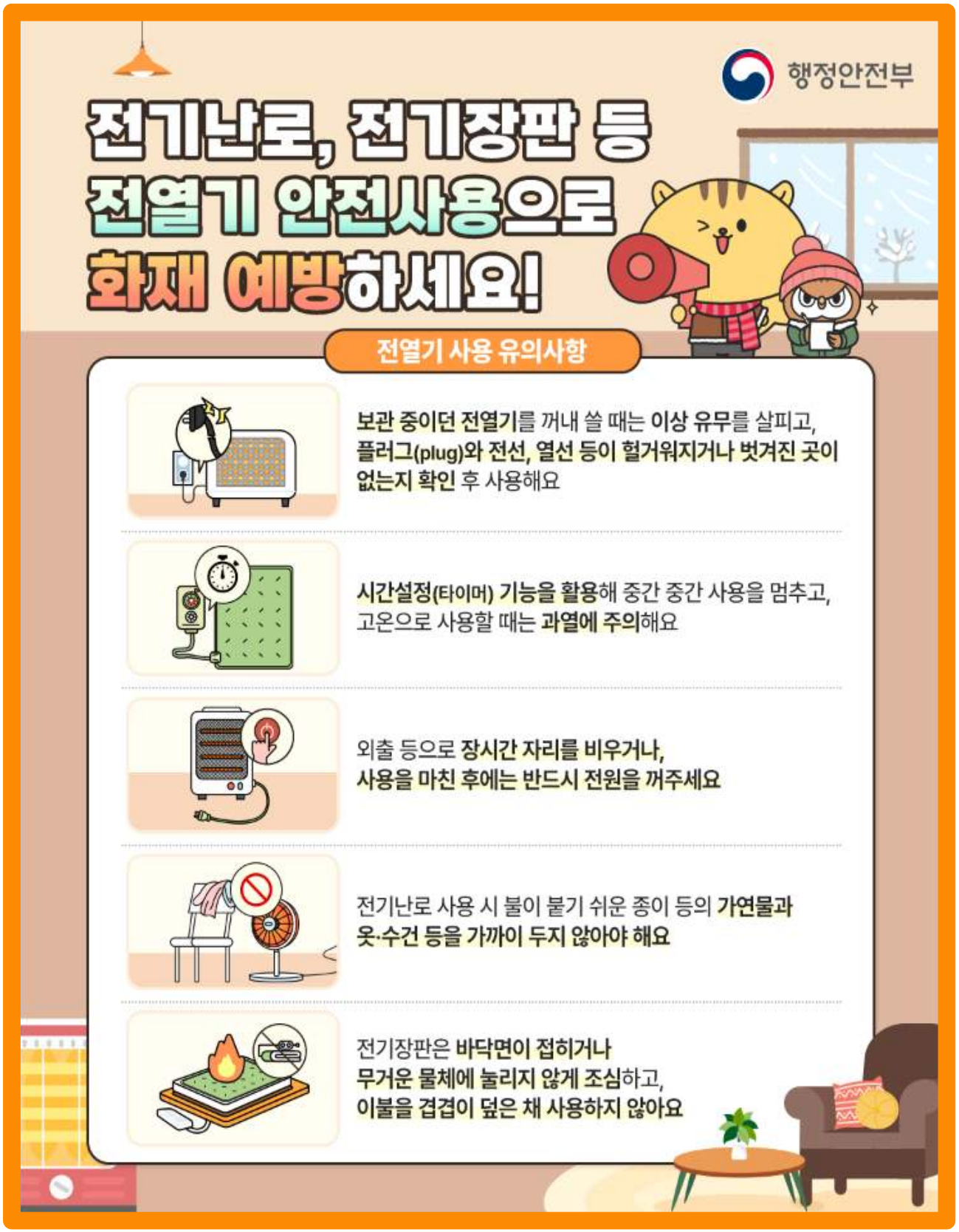
전기난로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졌을 때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이 있는 난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치선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날씨가 추워지며 난방을 위한 실내 전열기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련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화재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치선 (044-205-4510)
		담당자	사무관	송정호 (044-205-450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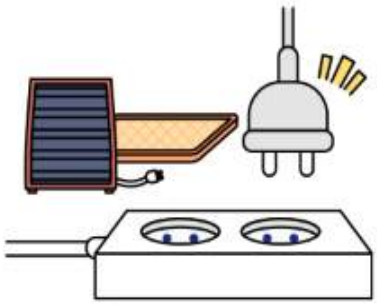
참고 전기장판, 전기난로 안전사용 요령



행정안전부

전기장판·난로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

전기장판·난로 안전 수칙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 끄고 플러그 뽑기



플러그·전선 상태 **점검 후 사용**하기
(균열·변색·탄 자국 발견 시 즉시 사용 중단)



전기장판은 **접힘·눌림·과열 주의,**
이불 과하게 덮지 않기



전기난로 **주변은 늘 정리**하고,
시간설정 활용으로 **장시간 사용 자제**